

한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Policy Considerations for Activating the Volunteering of Older Koreans

이 금 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Geum-Yong Lee

Sangmyung University

(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노인자원봉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 미흡, 여가 및 경제활동과의 연계성 부족, 제한된 노인자원봉사자 참여대상, 노인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미흡, 봉사시간 인증 및 보상체계 미흡,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① 사회적 인식 강화 및 확산, ② 질적 고도화, ③ 참여자 및 참여영역의 확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령사회, 노인자원봉사, 한국 노인자원봉사 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roblems on volunteering of older Koreans and to suggest policy considerations for activating volunteering system of Korean older adults. It is suggested that problems of current volunteering system are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 of volunteer activities, few connections with other areas such as leisure and economic activities, restricted recruitment of older volunteers, few research and survey of current situation on elderly volunteering, unmet reward and recognition system, and lacking in adequate evaluation for elderly volunteering projects which financially supported by government. For activating the volunteering system, three main policy considerations are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이금룡 교수 (e-mail: gylee@smu.ac.kr).

suggested; ① strengthening and spreading social awareness of elderly volunteering, ② upgrading the quality of volunteering, and ③expanding elderly volunteers and volunteer activities.

Key words : Aged society, Older volunteers, Korean volunteering system for older adults

I. 서 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제1차(2006-2010)와 제2차(2011-2015)에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6).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은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확대를 강조하면서 세부정책과제(1·3·3)로 은퇴자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시하여 정부 각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교육과 학부 등)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은퇴자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3).

이와 같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노인(고령자)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지극히 미미하다. 통계청(2015)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노인자원봉사참여율은 6.6%로 10년 이상 10% 미만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여율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노인자원자 참여율이 6.2%인 반면에 미국은 24.4%, 영국이 41.0%, 독일이 26.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6).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지 못했거나 정책 또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지만, 노인들의 건강이나 경제상태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노인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강한 가족주의 의식, 수동적 성향 등도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금룡·전용호, 2001).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주는 개인적 및 사회적인 이점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은 노인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예, 자살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을 비롯하여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등 삶의 만족을 증진시켜준다(Lum & Lightfoot, 2005; Morrow-Howell, Hinterlong, Rozario, & Tang, 2003; Musick, Herzog, & House, 1999). 다행스럽게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근래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층의 증가, 노년기 여

가시간의 증대, 노인의 교육 및 건강 수준의 향상,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증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으로서의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기회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이금룡·김태현·성미애, 2014). 이에 본고를 통해서 한국의 노인자원봉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노인자원봉사의 문제점

1.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 미흡

2014년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단순노력봉사가 7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미 및 교육으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준(準)전문봉사활동이 15.0%, 직업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전문 봉사활동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5).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교육부의 마을학숙 봉사단, 미래과학부의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등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이 있으나, 참여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건부

지부의 경우 노인전문자원봉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여 봉사자들이 전문직 은퇴자가 아니라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이 준(準)전문가수준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까지 교육상담, 금융경제, 기술기능경영, 문화예술, 의료보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준(準)전문봉사활동을 수행해왔으나 2016년에는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컨설팅(우울검사 및 관련기관 안내)으로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다양한 부처에서 전문직 은퇴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주로 사회복지 및 건강증진, 환경, 문화예술, 교육 등 일부 분야에 치우쳐 있다. 통계청(2015)에서 실시한 2015년도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봉사자들의 봉사활동 분야 중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한 비율은 4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전 및 범죄예방분야가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사회복지와 환경 및 범죄예방 분야에 전체 노인자원봉사자의 85.6%가 활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사회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중심의 자원봉사보다는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봉사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와 레저 등 취미활동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주성수, 2013).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영역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봉사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으며, 그 돌파구는 바로 스포츠와

레저영역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금룡 등, 2014). 봉사활동의 다양성은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함께 연동되기도 한다.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한다면 봉사활동의 유형 또한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가 및 경제활동과의 연계성 부족

여가활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자원봉사활동이 학습활동이나 경제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연계의 확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노인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간의 다양한 연계방안이 구축되어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즉, 여가로서 시작된 취미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다시 일거리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의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부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수행하는 자원봉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시민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활동(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제한된 노인자원봉사 참여대상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노인(고령자)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전달체계 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정책대상을 단순히 노인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까지를 포함시키고,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은퇴자 및 고령자 봉사단체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미흡

노인자원봉사와 관련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행정자치부의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세 곳의 노인자원봉사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통계청(2015)에서 실시한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자 비율이 7.8%, 65세 이상은 6.6%로 조사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자 비율은 4.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5). 반면 2014년도의 행정자치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원봉사자 비율이 17.1%로 매우 높았다(주성수 등, 2015). 이외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oluntarism Management System)과 자원봉사센터의 1365시스템 간에도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율은 물론 봉사활동 유형 및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의 특성과 특성별 활동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해 수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자 교육 등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자료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교기관과 민간단체 등 민간영역에서 수행되

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가 전체 노인봉사자의 35.9%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록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노인자원봉사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봉사시간 인증 및 보상체제 미흡

시간인증에 대한 자원봉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이 공유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현장기관들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자원봉사활동 관리에 있어서 시간인증 표준과 보상인정에 대한 표준화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금룡·전용호, 2011). 자원봉사활동 중 식사 및 휴식시간과 기관에서의 평가회의 시간을 인증하는 기관들이 각각 63.6%와 65.3%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봉사활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활동들을 노인복지관의 약 35%정도는 인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복지관에서 외부 자원봉사활동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은 정부의 인증기준 대상 활동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8.0%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외부(식당 등)에서 평가회의를 겸한 뒤풀이 시간도 22.4%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봉사자의 참여동기와 경제상태 및 가치관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정보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생일파티, 나들이, 봉사자 수상 등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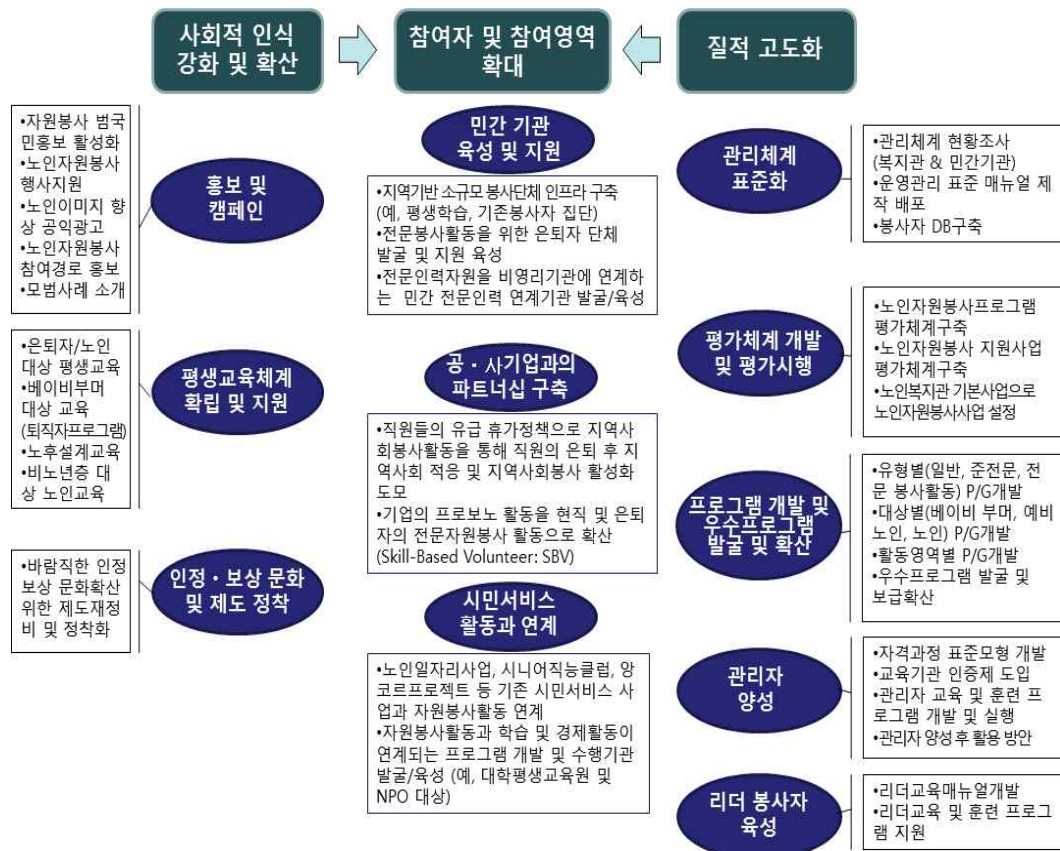
인 인정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재능나눔 지원사업이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같이 참여자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시민서비스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인정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봉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6.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들의 대부분이 양적 성과에 초점이 두어져 있어 노인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참여봉사자 및 봉사시간 등 수치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인큐베이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사업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위탁운영기관이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이러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output) 중심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과정이나 활동(activities)의 질과 함께 성과(outcome)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한국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① 사회적 인식 강화 및 확산, ② 질적 고도화, 그리고 ③ 참여자 및 참여영역의 확대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1>



(Figure 1) 한국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형도 (이금룡·전용호, 2011)

참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인봉사자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강화 및 확산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역시 노인자원봉사 영역 내에서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서 기존의 노인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모집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잠재적 봉사자들을 유인하고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과 전문인력을 통해 새롭게 진입하는 민간봉사단체 및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이금룡, 2016; 이금룡·전용호, 2011).

또한 노인봉사자의 양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및 참여영역의 확대’ 방안으로 지역기반 소규모 은퇴자 및 고령자 봉사단체 인프라 구축, 전문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시민서비스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노인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민간기관의 육성 및 지원, 공·사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시민서비스 활동과의 연계라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

의 마련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단순히 노인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까지를 포괄하고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은퇴자 및 고령자 봉사단체까지도 아우르는 ‘참여 대상의 확대’, 봉사활동이 일반(단순노력)봉사 및 준(準)전문적인 봉사활동에서 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까지 확대되는 ‘활동영역의 확대’,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학습과 여가활동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활동연계의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한다(이금룡, 2016; 이금룡·전용호, 2011).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① 소규모 단체 발굴·지원, 공무원·전문직 은퇴자 참여 활성화, 기업의 은퇴자 연계 사회공헌 지원 강화 등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 확산(2016~), ② 참여 고령자 자원봉사실적의 상시관리, 자원봉사 실태조사 등을 위한 고령자 자원봉사 통합관리체계 구축(2017~), 그리고 ③ 일반인과 교류하는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통해 고령화시대 ‘활동하는 신(新)노인상’ 정립(2016~) 등이 제시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이는 사회적 인식강화 및 확산 영역에서 ‘홍보 및 캠페인’, 참여자 및 참여영역 확대 영역에서 ‘민간기관 육성 및 지원’ 및 ‘공사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질적 고도화 영역에서 ‘관리체계 표준화’의 세부 정책방안과 매우 유사하다.

앞으로 제3차 기본계획이 실행될 5년 동안에 이러한 정책들이 잘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서도 여전히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정착(사회적 인식강화 및 확산 영역), 시민서비스 및 경제활동과의 연계(참여자 및 참여영역),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관리자 양성, 리더 봉사자 양성(질적 고도화 영역) 등의 활성화 방안들이 실행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선, 관리자나 리더 봉사자의 양성은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노인자원봉사 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리자(실무자) 및 리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크게는 부처들 간에, 작게는 기관들 간에 소통단절과 협업 미흡으로 인해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이 관리자와 리더 봉사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전문기관이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봉사프로그램 운영 및 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실무자 및 봉사자 교육을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봉사시간에 대한 인정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 시행계획’을 제정하였고,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기관별로 봉사시간 인증기준과 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봉사시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상황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명료화하고 공식화해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 및 내규를 공식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노인봉사자들의 봉사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을 시민서비스 및 경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노인재능나눔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고용노동부), 퇴직공무원 지원사업(행정자치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자연환경해설사(환경부), 바다해설사(농림축산식품부), 학교보안관 및 고령자 교통 서포터즈(서울시)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서비스 활동은 단기간 근무제(part-time) 형식이나 주어진 일정 기간에 한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과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이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운영되는 민간기관(교육기관 및 비영리기관)을 발굴

하고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개발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을 위해서는 유형별, 대상별, 또는 활동영역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한국노인자원봉사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와 환경영역 등 일부 영역에 봉사활동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전문성보다는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형별(일반, 준전문, 전문), 대상별(베이비부머, 예비노인, 노인 등 세대별, 성별 등), 그리고 스포츠나 레저 등 아직도 미흡한 분야의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검증된 우수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신생기관이나 농어촌지역의 기관들을 위해 이를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시행은 노인자원봉사활동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실행되는 노인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봉사활동의 질적 측면, 사업의 지속성, 파급효과 등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활동과 성과에 보다 비중을 두는 평가 틀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 (201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2013-2017)**. 행정자치부 발간자료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449-01).
- 대한민국 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이금룡 (2016). 노인 사회참여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9호**, pp. 60-69.
- 이금룡·김태현·성미애 (2014). **노인복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금룡·전용호 (2011). **노인자원봉사활동 공통기준 수립 및 인정과 보상 체계 구축기반 조성**.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년사회정책연구소 연구자료.
- 정경희 등 (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탁정책보고서 2014-61.
- 주성수 (2013). **자원봉사문화와 제도**.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주성수 등 (2015). **2014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1999-2014 자원봉사 및 기부실태 비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통계청 (2015).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Available from <http://www.narastat.kr/ess2015>
- Lum, T., & Lightfoot, E. (2005).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lder people. *Research on Aging*, 27, 31-55.
- Morrow-Howell, N., Hinterlong, J., Rozario, P., & Tang, F. (2003).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8B(3), S137-S145.
- Musick, M., Herzog, A., & House, J. (1999).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4B(3), S173-S180.
- 원고접수일: 2017. 02. 15.
수정원고접수일: 2017. 03. 20.
원고게재승인일: 2017. 04. 03.